

한·일 기업간 경쟁과 협력

-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 따라잡기의 대표주자인 삼성과 포스코 등을 비롯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을 추격해 온 결과, 2000년대를 전후하여 양국 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경합관계로 발전
- 이후에도 韓日 양국이 상호의존 분야가 많은 가운데, 자국시장은 물론 제 3국 시장에서도 제휴협력이 확대
- 향후 경쟁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, 잘 설계된(well desined) FTA가 해법이 될 수 있음

□ 일본 따라잡기에 성공한 삼성과 포스코

- 샤프에 3% 출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의 의도는 대형패널의 안정적인 조달과 일본에서의 기업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 - 일본에서 제조 장치나 소재를 구입, 대학이나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휴먼기술에도 기대를 거는 등 삼성 내에서는 가능한 한, 샤프의 소재부품을 구매하자는 의견
- 1965년 韓日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전수
 - 선두주자가 바로 야하타제철소(현 신일철주금)등의 협력을 얻어낸

포스코이며, NEC와 산요전기와의 합작으로 힘을 키운 삼성이 전형적인 사례임

-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었으며, 식민지배의 잔재라고는 하나, 일본이라면 말도 어느 정도 통하고 기술서적을 해독할 수 있었음
- 무엇보다도 일본을 지척에 둔 생산재의 공급거점이자, 세계의 비즈니스 허브로 활용

□ 韓日 기업 간의 격차 축소와 경쟁관계로

- 일본을 추격해 왔던 한국의 위치가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대로 양국 기업 간의 격차가 줄어든 반면, 경쟁이 치열해짐
- 2007년 현대제철이 고로사업 진출 당시, JFE스틸에 기술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

* JFE는 라이벌 기업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셈이 되기 때문임

- 이에 한국기업이 주목한 것이 유럽으로 현대제철이 기술계약을 체결한 것은 독일 티센그룹이며, KTX가 TGV차량을 도입한 것은 프랑스 알스톰사임
- 기아자동차도 독일 아우디 출신 디자이너를 초청,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 성장했듯이 소프트 기술을 흡수하려는 의욕이 강했음
- 한편, 세계시장에서 韓日 기업 간의 경쟁이 과열
-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고성능강판 기술을 부정 취득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, 도요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본거지인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

□ 한국의 對日 의존분야 아직도 적지 않아

- 한국이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는 분야가 많음
 - 프랑스에서 기술을 도입한 KTX는 사고 직전에야 핵심 부품이 빠져있음을 발견, 저속주행 중 탈선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후, 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프랑스와 제휴한 것을 후회
 - 국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제품으로 할 수는 없었으나, 일본의 신간선을 도입했다라면 기술이전도 원만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
 - 한국은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지만, 경영난에 처한 르노삼성자동차는 نيسان자동차의 생산수탁에 사운을 걸고 있음
 - 전시 징용배상문제로 제소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에서 세계 최고 효율의 대형 가스터빈을 수주, 만성적인 전력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

□ 韓日 기업 간의 제휴협력

- 일본으로서도 한국은 단순히 생산위탁만을 하는 것은 아님
 - 한국가스공사와 제휴한 미쓰비시상사와 같이 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제휴, 리스크 분산과 판매처 확보를 양립시키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
 - 또 일본의 플랜트 설계회사와 한국의 종합건설업체와 제휴함으로써 중동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음
-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어느 의미에서 일본이 포기했다는 지적
 - 히타치제작소는 TV나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이전했으나, 지금은

이와 관련된 사업을 대폭 축소

- 히타치 사장은 “히타치는 물 처리 산업분야에서 LG와 제휴하는 한편, 모노레일이나 발전용 보일러를 한국에 납품, 주고 받기식의 대등한 거래 (give and take)가 명확” 하다는 것
- 닛케이신문은 은혜와 원한을 초월하여 과거에 구애되지 않고, 일본기업들도 한국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어 부담 없이 응분의 보상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

□ 경쟁과 협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

- 한일 경제관계에 대해 닛케이신문의 논평은 ‘경쟁과 협력’이라는 키워드로 집약
- 韓日 기업 간의 주고 받기식의 대등한 거래가 한 차원 높아지기 위해서는 양국 기업은 물론 산업 및 정부 간의 경쟁과 협력이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
-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과 유럽간에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아시아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, 韓日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, 그 속에서 韓日 양국 간의 경쟁과 협력의 내연과 외연을 확대·심화시키는 것이 중요
- 이에 韓日 양국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설계된(well designed) FTA가 해법이 될 수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3.24)